



진흙탕



김정자 언론인

요즘 힘겨운 쓰는 분들의 '진흙탕 속' 싸움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지만 바닷가 개펄 등에서 벌어지는 진짜 진흙탕 싸움 놀이는 참으로 신나는 즐거움, 불거리가 아닐 수 없다.

진흙탕 속에 들어가 온 몸이 진흙을 바르고, 핑글며 미끄러지며 한바탕 법석을 부리고 나면 황량한 문명에 저들었던 심성에 원시본능이라도 되살아나는 것일까.

코끼리 코뿔소 물소 등 덩치 큰 동물뿐만 아니라 각종 새들, 우리 주변의 참새들까지 '진흙탕 목욕'에 흥취를 하는 모습을 보면 본능적으로 좋은 것을 알게 되는 동물적 본능이 어떤 것인가 짐작된다.

진흙탕 목욕은 동물의 털 속에 숨어있는 진드기 벼룩 등을 없애주고, 벌금작용에 피부와 털을 깨끗하게 씻어 주는 데도 청정한 물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사람의 피부미용에도 더할 나위 없다는 유혹이 무더운 여름 계절을 달구어 가고 있다.

과학은 흙 가운데 가장 미세한 점토를 생명의 틀로 보며 점토 스스로 진화하고자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당장의 생명 유무만으로 생물 무생물을 구분하는 것은 자연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일 수 있다. 황토도 깻벌도 모래사장도 생명의 본질이며 생명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강 바다의 고질적인 녹조 홍조현상이나 오염된 양어장에 황토를 뿌리는 지혜도 여기서 출발한다. 서해안 갯벌 속에 몸을 푼다 보면 그런 기초적인 생명의 신비에 대한 깨달음이 함께 열리면 더욱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투구' 라든가 '진흙탕 속 싸움'이란 표현을 정화(淨化)현상의 하나로 봐 주면 너무 너그러운 것일까.

불교소재 영화 해외진출 러시

불교를 소재로 한 한국 영화의 해외진출이 줄을 잇고 있다. 동지승의 성장과 구도과정을 담은 김기덕 감독의 신작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이 제 56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장편 경쟁부문에, 애니메이션 '오세암'은 2003 CICAF 애니메이션 영화제 경쟁부문에 각각 진출했다. 또한 최근 개봉한 애니메이션 '원더풀 데이즈'도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미국의 픽사PIXAR가 시사회를 요청하는 등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장군수배

무책임한 농림부장관

법원의 세만금 간척사업 중단명령에 항의하며 김영진 농림부장관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소신 있는 행동'이라는 의견과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의로 사표를 던진 것은 세만금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다. 김 장관의 사표는 18일 수리됐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0여 년 동안 세계의 빈부 격차는 두 배 이상 벌어졌고 아직도 전체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0억 명이 하루 2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의 어린이 6명 중 1명은 아동노동 시장에 편입되어 있고 이 중 상당수가 열악하게 짝이 없는 비참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는 보고여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심지어 돈 많은 노인을 상대로 하는 노예결혼이나 아동매춘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가난을 벗어나려는 부모의 지식 매매가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더욱 참담한 심정이 된다.

최첨단 물질문명 시대인 21세기에도 빈곤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제도도 향상되고 과학도 발달했지만 이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교적 지혜를 떠올려 본다.

불교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서도 자리아타행은 윤리학적 의미의 응용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실천원리라고 생각한다. 왜 '이타자리'가 아니고 '자리아타'일까? 그것은 인간의 심리적 사실을 솔직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고려한 행동을 하게 마련이다. 부처님은 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단계의 행위, 즉 '이타행'을 주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딱딱하거나 어렵게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자리'와 '이타'는 순차적 개념이 아니라 동시적, 자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어떤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여법한 '자리행'은 동시



불자 세상보기

허남길

한국불교연구원 연구부장 · 철학박사

다 함께 잘살수 있는 방법

에,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타행'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익은 개인의 차원을 떠나 일체 중생을 다 함께 보듬는 보편적 차원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연기사 공, 무아설 등은 이런 자리아타적 의미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불자들의 교학적 근거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나를 포함한 시방의 모든 유형, 무형의 생명체를 이익되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대승보살의 서원은 불교윤리의 시작이자 그 완성이 된다.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현학적이고 화려한 교화사상의 나열보다 일반인들의 교양과 상식에 부합하는 단순 소박한 도덕적 판단 기준, 예컨대 자리아타행이나 요익중생 속의 '이익' 개념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어렵지만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실천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순진한 발상을 또 해 보게 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반전평화불교대책위 '불교활동가 평화토론회'

'불교활동가 평화토론회'가 반전평화불교대책위원회 주관으로 11일 열렸다. 한반도의 위기진단과 해법, 평화를 위한 불교계의 역할을 논의한 이번 토론회에서 기초단체장도 나선 불교포럼 실행위원장 노귀남 박사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공개하고 "북한 문제는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편집자주>

교포럼 실행위원장 노귀남 박사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공개하고 "북한 문제는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편집자주>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 바람직

평화를 위한 불교계 역할

노귀남(불교포럼 실행위원장)



북한은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고 그 사상의 중심에 주체사상이라는 '성군 정치사상'이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 강조를 통해 국내적으로 자력강생을, 국제적으로 체제안정을 꾀하고 있다. 또 북한은 주민들을 철저하게 사상상으로 무장시켜 자본주의의 유입을 차단하려고 하지만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아 서서히 붕괴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사회의 붕괴는 우리 사회와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하지 않고 피상적으로만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아직

열린 마음으로 문제 논의의 대야

도 극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불교계의 시각으로 한반도 문제를 살펴볼 때 불교계는 북한 주민의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마음과 마음을 열고 북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이 세상에 고통 받는 이가 있다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한 신장보살의 가르침처럼 모든 불교단체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통일을 서원해야 한다. 지금은 각 불교단체들의 다양한 생각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할 때다.

한반도 위기진단과 해법

서보혁(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



이러한 전쟁에 승리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문제 삼아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대외원조를 받고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 대미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 체제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체제 안정을 확보하려는 북한도 사태를 확대시키려는 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의 대미 관계정상화 노력은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대북 관계회복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북 변화위한 발상전환 필요

있는데, 클린턴 정부와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불가침 조약'(국제법상 구속력을 가짐)을 '외세의 반대'라는 명분으로 거부하고 있는 점에서도 미국의 소극적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 위협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체제 변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수와 진보라는 대립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독자투고

도혜광(대구시 북구 고성동 3가)

불교의 실천행을 나타내는 육바라밀 중 첫번째는 보시바라밀이다. 보시란 정신적·물질적 가를 없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자신을 챙기는데 급급한 나머지 이웃을 돕는 일에는 인색한 것 같다. 때문에 사찰을 위한 불사가 아닌 가난하고 고통스런 중생을 위한 불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내가 속한 영남불교대학 봉사회는 매주 목요일 대구의 한 시립의료원을 찾는다. 이곳 환자들의 대다수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결식자 등 가난하고 가족이 없는 이틀이다. 역겨운 냄새 속에 말 한마디 없이 앉아 있던 이들의 모습은 마치 우울증에 걸린 환자 같았다. 오랫동안 껴안아 제

이젠 중생위한 불사를 하자

멋대로 자란 손·발톱을 정리하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닿는 우리의 손길은 얼마 되지 않아 병실 안에 크고 작은 변화들로 새롭게 피어났다. 이는 제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나오다 먼저 웃으며 "오늘도 수고하러 오셨군요. 고맙습니다"하고 인사를 건네고, 목욕을 하겠다고 서로 나서고, 이런 인사보다 더 뜻깊은 것은 병실의 분위기와 환자분들의 모습이 많이 밝아졌다는 점이다.

병원 입원환자 목욕봉사와 쾌유발원기도, 가정방문 목욕봉사 등을 해온 지 어느덧 8년이 되었다. 세상에는 가난과 병마의 고통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있는 이들이 많다.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사람들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인 보시바라밀을 이웃에게 행하는 것. 이것은 어느 불사보다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큰 것이 아니라도 좋다.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가 중생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령스님 파동명상수련으로 영통(靈通)을 이루다!

파동명상수행으로 영통靈通을 하신 스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만 여기에는 허락을 하신 분의 사례만 실고 있습니다.

◎ 강원도 어느 산중 토굴에서 수행하시는 보령스님(☎ 017-556-5900)은 저희 연구소와 인연(2003년 1월 말경)을 맺고 파동명상수행을 하시던 삼일째 되던 날 새벽,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를 끌어 들일 수 있는 파동명상수행을 통해 우주의식(자연의식)과 합일을 이루는 순간, 스님은 홀연히 '색즉시공色即是空 공즉시색空即是色'의 참 경계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날 아침 스님은 더 이상 연구소에 머무르지 않고 길을 떠났다. 스님이 길을 떠나기 전 들려준 이야

기에 의하면 새벽에 파동명상을 통하여 마음 깊은 곳으로 의식을 옮기는 순간,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가 한 눈에 들어왔으며 평소 스님의 주위에 있던 가까운 신도들의 삼세의 인연법들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맑은 연못 위에 비치듯 그 시작과 끝이 한눈에 보였다고 했다. 파동명상수행과 인연의 시간이 있어 계속 수행 정진하시는 스님의 허락을 겨우 얻어 스님의 경험담을 이 지면에 실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영역(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우주영역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령 : 몸속에 있거나 장애를 주는 영가와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는 것을 제주(祭主) 또는 신도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 원격명상제령 :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한다.
◆ 파동명상수업의 :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기법의 파동명상을 통해 靈通을 열 수 있게 한다. (숙명동..)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일시 : 매월 2째주, 4째주 (본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수련과정

-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전문반 수련후 상담후 등록(수련비 300만원)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